석유화학과 나프타가격

국제 나프타가격이 톤당 200달러를 돌파했다고 한다.
지난해 4/4분기 이후 줄곧 190달러선을 유지해왔던 나프타가격이 200달러선을 넘어선 것은 이미 예측된 일이기는 하나, 가뜩이나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현 상태에서, 원료가격 상승은 국내 석유화학산업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 틀림없을 것이다.
물론 이스라엘의 레바논 헤즈블라 기지 폭격이 이스라엘·시리아 간의 전쟁으로 발전될 지는 단정키 어렵겠으나, 양국의 군사력 및 아랍권의 분열상, 걸프전의 후유증 등으로 전면적인 중동전으로 확대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다만, 세계 최대의 산유국이면서 OPEC를 주도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가 현재 배럴당 18달러에 거래되고 있는 원유가격을 21달러로 3달러 정도의 인상을 시도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국제 원유가 상승은 필연적이 아닌가 하는 우려는 된다.
그러나 사우디가 기를 쓰고 원유가 인상을 추진한다 해도, 금방 국제 원유가격이 폭등한다거나 하는 돌발적인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사우디의 미국 의존율이 지나치고, 미국의 경제가 약간의 회복 징후를 보이는 시점에서 원유가 상승이 몰고 올 여파가 크다는 점, 쿠웨이트의 원유 생산 본격화, 이라크·이란의 증산 및 수출증대 요구 등 원유가 인상 시도가 쉽지만은 않으리라는 요인은 많다.
여기에 러시아가 국내 유가를 현실화 하면서 수출을 늘린다면 , 사우디의 의도는 한풀 꺾일 게 틀림없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러한 낙관적 전망에도 불구, 국제 원유시세가 20달러를 넘을 것이라는 예측은 전문가는 물론 원유시세 결정에 문외한인 자들도 쉽게 수긍하고 있다.
특히, 1인당 GNP가 6500달러 수준에 불과한 우리 국민들의 사치와 낭비를 보노라면, 국제 원유가격이 올라야 되고—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별개로 한다면—국내 석유제품 가격도 대폭 인상, 강제적으로 절약을 유도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여론도 상당한 수준에 달하고 있다.

국제 원유가격이 불안정하고, 여러가지 변수가 본격화하는 시점에서, 최근 국내 석유화학 산업체들이 국내 나프타가격 기준을 바꿔야 하지 않겠느냐고 문제를 제기, 논란이 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현재 국내 나프타가격의 기준이 되고 있는 C&F Japan을 Singapore FOB로 바꿔야 세계적인 공급과잉으로 바닥권을 헤메고 있는 국내 석유화학산업이 회생하고 약간이나마 정상화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즉, C&F Japan 가격이 Singapore FOB보다 평균 톤당 13~15달러가 높기 때문에 국내 석유화학업체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C&F Japan 가격이 높게 형성돼 있다는 점에서 일리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내 나프타가격 기준을 Singapore FOB로 바꾼다 해도, 국내 정유기업들이 나프타 생산량을 줄인다든가 또는 생산한 나프타를 국내 석유화학 기업에 공급하지 않고 수출하게 된다면 기준을 바꾼다 한들 무슨 필요가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이는 최근들어 전부는 아니나 석유제품 가격이 정부의 통제체제에서 자유화되고 있다는 점에서—과거에는 나프타가격이 인하돼도 타 석유제품 가격에 전가함으로써 보전해 줌—정유기업에게 일방적으로 손해를 강요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한가지 방법이 있다면—나프타가격을 낮추기 위한—에틸렌 생산능력 기준 350만톤 체제에 맞는 나프타 구입선의 다변화 및 구매방법의 개선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여기에 100% 나프타에 의존하고 있는 석유화학 원료를 LPG 및 중질NGL로 대체, 원료의 다양화를 서둘러야 할 것임은 필연적 사항일 것이다.
나프타 구매방법의 개선은 지금까지 3만~5만톤에 한정됐던 1회 구입량을 10만톤 정도로 대형화, 운임 절감을 통해 실제가격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3년전부터 대림산업·호남석유화학·한양화학이 공동으로 건설하고 있는 여천탱크터미날이 연말경

완공된다고 하니, 여천지역은 3~4개사가 나프타를 공동으로 구입하게 된다면, 그 가능성이 큰 것으로 엿보이고 있다.
대산지역도 삼성·현대가 나프타를 공동으로 구매하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비용절감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자유화 시대에 맞는 현명한 방법의 선택이 필요한 때이다.

<화학저널 1992/6/15>